

전북-경기, 양자 클러스터 대응 '맞손'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 대응 컨소시엄 구성... 양자산업 거점 구축 위해

양자통신 중심 '컨소시엄 전략'으로 소부장·컴퓨팅 연계 산업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자 클러스터 지정 공모 대응에 손을 잡았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전북과 경기도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북테크노파크·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초광역 협력 기반의 양자산업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양자통신을 핵심 축으로 양자소부장과 양자컴퓨팅을 연계하는 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양 지역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산

업화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풍부한 실증 인프라와 산업 적용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화와 확산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연구개발 및 기술 고도화 기능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천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보완하고, 경기도는 실증·산업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연구 기관·기업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투자·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 나아가 연구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양자 기술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컨소시엄은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지역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디지털·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계해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 간 경쟁 구도를 상생·협력으로 전환해 국가 단위 양자산업 경쟁력을 끌

어올리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양자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금융·공공 데이터 보안 실증을 추진하며, 양자암호통신(QKD)과 양자내성암호(PQC)를 결합한 차세대 양자보안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세만금까지 양자통신 인프라를 확장하고, 국가 양자 백본망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기반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도권의 연구개발 역량과 전북의 제조·실증 기반을 결합한 초광역 협력체계를 발판 삼아, 금융보안과 산업 현장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해 전북형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9월 30일까지 가동... 폭염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시체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시체계에는 도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자로 진단된 사례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례를 매일 모니터링한다.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통계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오후 4시에 공개되며, 도민 누구나 전날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전주 효자 CGV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주 4·3의 이름을 담은 영화 '내 이름은 관람' 프로그램 진행했다.

전북의 5월, 제주의 4월을 기억하다

전북교육청, 도내 교원 대상 제주 4·3 특강 등 진행

영화 '내 이름은 관람'...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특강과 영화 관람을 통해 교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전주 효자 CGV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4·3 특강과 영화 '내 이름은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교원의 근현대사 교육 역량을 높이고 제주 4·3에 대한 역사

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4·3이 나에게 건넨 말'의 저자이자 서귀포중학교 교장인 한상희 작가가 강연자로 나섰다. 한 작가는 제주 4·3의 유족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과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문화와 영화 속에서 4·3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제주 4·3의 아픔을 담은 영화 '내 이름은 관람'이 상영됐다. 이 작품은 4·3 사건 속에서 이름과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비극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화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이 제주 4·3 사건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평화·인권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행사가 교원들이 제주 4·3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역사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상용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지원 본격

국립군산대 소부장지원센터, 올해 최종 선정결과 발표... 총 49곳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전북 군산 소부장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상용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기업지원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OPEN LAB 프로젝트 △전장품 성능평가 △혁신제품 사업 △제품고급화 △ONE-POINT 멘토링 △dEV특화 제조공정개선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공정개선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센터 측에 따르면 공모 결과 총 77개 기업이 신청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최종 49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차 산업의 핵심기술 자립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OPEN LAB 프로젝트에 선정된 (주)케이엠트론은 HIC 기반 수소차용 중저압 50bar급 수소압력센싱 모듈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소차 관련 부품 기술의 국산화와 미래차 분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포부다.

혁신제품 사업과 부문에서는 (주)케너지온이 열충주 방지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특수목적 모바일리튬 4.8kWh 급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주)네트스트는 '이차전지 열관리용 올림피케이션 차단 복합필름' 사업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전장품 성능평가 부문의 (주)에이피솔루션 에너지아이, KGM(주) 등은 방음부스 내부진동 인공평가, 이동형

전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평가, 7m 저상전기버스 완속충전 전자파 시험성능인증 등을 지원받아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더불어 이번 선정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에 필요한 센터 내 첨단 장비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R&D 협력 등 실질적인 밀착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군산대 전북군산 소부장지원센터 유경현 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센터가 보유한 인프라 역량을 총동원해 군산 지역의 상용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 교육공무직 193명 합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현장 운영을 지원할 교육공무직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 인력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15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했으며, 총 7개 직종 193명이 합격했다.

직종별 합격 인원은 △교무실무사 15명 △조리실무사 118명 △특수교육지도사 30명(장애 2명 포함) △돌봄실무사 21명 △교육복지조정자 1명 △교육복지자 7명 △임상심리사(Wee센터) 1명이다. 특히 학교 급식과 학생 지원, 특수교육 및 심리·복지 분야에 인력이 집중 배치되면서 교육복지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합격자들은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친 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공무직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서울대와 고교 진학지도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입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고교 진학지도 컨설팅'을 운영한다.

컨설팅은 도내 1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오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2027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전략, 대입 지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컨설팅과 연계해 19~20일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도 함께 운영한다.

/오상근 기자

건강한 나·지구환경·존중·위생·미래

전북교육청,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개최

그림일기·포스터·소프트폼 등 5개 분야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학교급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창작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급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분야는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 등학생), 캠페인 사진, 소프트폼 영상, 이모티콘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교직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건강한 나를 위한 '영양급식',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생태급식',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인성급식', '△위생과 질서를 지키는 '안전급식', '△미래와 세계를 향한 '창의급식' 등으로 학교급식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했다.

작품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 전북교육청 문예제검강과 학교급식팀으로, 이메일 접수는 지정된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각 분야별로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10편을 선정해 교육감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자료집으로 제작·배포되며, 바른 식생활 교육과 학교급식 홍보 전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15일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침수 특화 재난안전 진흥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침수 특화 재난안전 진흥시설 현장점검

도-행안부, 군산 위치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15일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침수 특화 재난안전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재난안전시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행정안전부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과 김영민 군산부시장을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건설기계연구원(KOCEI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침수 재난에 특화된 시험·평가·인증 기반을 구축해 재난안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추진 중

인 사업으로, 침수 재난 대응 제품과 기술의 성능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지방비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장비 활용도 제고와 지역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계 연구개발 사업도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가 총 80억원 규모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단장이 사업 추진 경과와 장비 구축 현황을 설명하고, 침수 재난 대응 기술개발 및 연계 연구개발 추진 상황 등을 발표했다.

현재 진흥시설에는 침수환경 모사 피로시험 시스템, 복합 침수 환경 시험 장비, 치수제품 평가 시스템 등 침수 재난 대응 제품의 성능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장비 10종이 구축 완료됐다. /오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동물헬스케어 산업 전문인력 키운다

도, 익산시 등과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중인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도는 지난 15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익산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와 함께 '그린바이오 동물헬스케어 학부(가칭)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홍진

수 원광대학교 부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그린바이오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동물헬스케어학부(가칭) 설치 및 운영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대학 간 학점교류·연계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